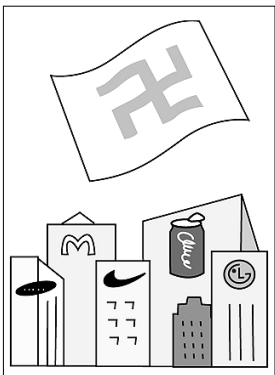




이미지 통합작업 서둘러야

이미지통합 CIP(Cooperation Identity Process). 말 그대로 기업 정체성을 시각적 이미지로 담아내는 작업이다. 기업윤리와 정신, 이상 등 모든 것이 하나로 표현되는 셈이다. 자사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을 높여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이 작업을 하고 있다. 전적으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럼, 불교계에서는 산재한 불교 이미지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묶어내야 할까. 최근 들어 조계종 등이 종단 이미지 브랜드화 작업을 추진,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전격 도입했다. 각 종단과 사찰의 개별적 특수성을 감안, 다양한 심볼과 캐릭터, 전용서체 등을 개발하고 있다. 진

이미지 제고·포교 효과 극대화 범불교 네트워크 구축의 기본



판단도 또 다른 이유다. 물론 이런 이미지 통합작업이 기존 불교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포교대상에 대한 적극적 접근과 새로운 포교방편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이 같은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지 통합작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이미지표준화본사의 상세한 관리, 추가적 개발과 응용분야의 확대, 사용자 인식과 관리마인드의 향상이 요구된다. '왜' 하는지를 궁감했다면, 이제는 '어떻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 작업의 추진과 운영 성패는 변화하고자 하는 주체의 확고한 의지, 체계적인 시행, 운영을 위한 조직·제도적 뒷받침 등의 연구가 뒤따라야 하기에 그렇다. 한국불교는 다양화, 전문화로 대변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민족의 정신으로, 문화와 전통의 주체로서 한국 불교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 종단과 사찰이 전문화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범불교적 네트워크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불교계 이미지 통합작업은 이에 대한 토대를 이루는 분명한 중대 불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불교 이미지 통합작업은 종행정의 체계화와 시스템운영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기에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높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화성(간리종 문화사회부장)

한암 스님 생가 복원 기념관 설립 추진

화천군, 2008년까지 94억 투입 계획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했던 한암 스님 생가가 복원되고 기념관이 조성된다. 또 보물 496호 계성사지 석들이 있는 계성사지가 복원되고, 200여명 수용 규모의 불교문화수련관도 건립된다. 화천군은 9월 20일 평창 월정사(주지 정법)에서 한암 스님 생가복원 및 기념관 조성사업 기본설계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화천군 출신인 한암 스님의 업적을 기리고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8년까지 총 94억원을 투입,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586답 법지의 4 지역에 생가 복원 및 기념관 조성, 수련관 건립, 계성사지 복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가 및 기념관은 37,198㎡(11,252.4평) 규모로 들어선다. 이중 생가는 73.6㎡(22.2평),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전통한식 목조건축으로 복원된다. 한암 스님의 생애 및 자료가 전시되는 기념관은 194.4㎡(58.8평), 정면 5칸, 측면 3칸으

"다 놓고 선방으로 가겠습니다"

조계종 13대 중앙종회 전반기 의장 지하 스님



조계종 13대 전반기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지하 스님이 40여 년간의 종단 소임을 끝으로 선방으로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60년 추담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지하 스님은 63년 종비생 1기로 선발되면서 종단 일에 몸담았다. 총무원 부원장,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5·6·7·9·10·11·12대 중앙종회의원, 12·13대 중앙종회의장 소임을 맡았다.

—군 포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종교 특히 천주교에서 반대가 심할 것이다. 즉 신분차별 문제로 수녀들을 군 장교에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에서 비구니 스님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비구니 스님의 중앙종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적능별로 한두 명 증가한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총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40여 년간 종단 일을 해 왔지만 금년 가을부터 선방에 가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선방에서 참구하는 것만 수행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일 자체가 수행이다.

8선 종회의원...40년 종단 일 "대화중심 종회되도록 노력"을

▲종회를 운영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과 개선되어야 할 점은? —젊은 의원님들이 각 분과 활동을 열심히 해 이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대화중심으로 운영돼야 할 종회가 대화중심으로 갈등을 겪었던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의장 재임 시 별번지 사면 등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사면을 반대하는 측과 사면에 동의하는 측 모두 일리가 있다. 개인 경험에 비하면 때 법 논리에 밝은 것보다 상황논리에 밝은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중앙종회의원 면책특권이냐 교구별 중앙종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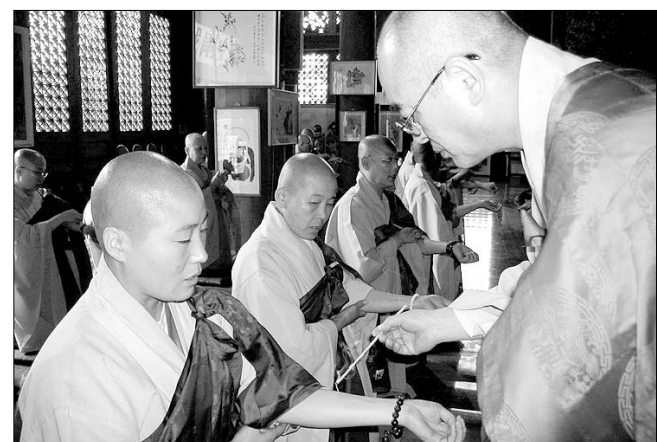
—(중앙종회의원 숫자와 관련) 현 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아니더라도 잘 돼 있다고 본다. 면책특권은 없어져야 한다. 입법 자체가 잘못됐다. 입법할 당시에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종회가 변했는지? —종회도 많이 보완됐지만 특히 12, 13대에 들어와서 폭력적 언행이 많이 줄었다. ▲종회모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비구니 스님들을 군법사로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 중앙종회 사무처가 9월 22일 발표한 13대 전반기 중앙종회 현황에 따르면, 종회는 총 10회 개최됐으며, 평균 82.2%의 참석률을 보였다. 34일 중 16일 동안 55시간 43분 회의가 진행됐으며 총 1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에는 총무원법 개정(157회), 승려법개정(158회), 종헌개정(162회), 총림법개정(163회) 등이 포함돼 있다. 남동우 기자

일산불교병원장에 이석현 교수 동국대이사회, 상임이사에 영배 스님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병원장에 이석현 고교리대 구로병원장이 내정됐다. 이에 따라 동국대의 일산불교병원 개원작업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9월 20일 제 203차 이사회를 열고 일산불교병원 원의무원장 겸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양방병원장)으로 내정된 이석현 교수의 임용을 승인했다. <이석현 교수 이력 5면> 이밖에 한방병원장에 한의학과 이원철 교수, 행정처장에 성익재 전대한원협회 사무총장을 10월 1일자로 임명키로 했다. 한편 지난 202차 이사회 정관계 정으로 신선휘 상임이사는 영배 스님이 선임됐다. 그동안 이사장 직무에 대한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이유로 논란을 빚어온 것을

의식한 듯 영배 스님은 "상임이사는 순수하게 이사장의 보좌 업무로만 한정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이사의 업무 개시는 선임이 결정된 21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또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불교대학발전위원회 관련 시행세칙도 마쳤다. 불교대학발전위는 이사회 내 특별위원회로, 영배·영배·확담 스님, 동국대 서운길·김성철·김병식(이상 동국대), 최병현(서울대), 이평래(충남대) 교수 등 8명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불교학부 교육 및 운영, 대학원 교육 및 운영, 불교학연구 진흥 및 교수활동 지원, 졸업생 진로지원, 불교대학 관련기관 및 단체 발전방안 마련 등이다. 조용수 기자



태고종 새 스님 143명 수계 태고종은 9월 21일 서울 봉원사에서 제5회 구축계수계식을 열고 비구 91명, 비구니 52명 등 143명에게 구축계를 내렸다. 이날 구축계를 받은 스님들은 사미·사미니계를 받은 지 3년이 경과한 사미·사미니들이다. 박봉영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언제나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은,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통일로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group.co.kr E-mail: heegyun2@hanmail.net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스님, 불자님들의 유익한 정보지 2004 불교종합정보. 불사관련 업체 광고 수록문의!! 불교TV 방송중. 불교TV 기획실 02-713-5114. 2004 불교종합정보. 국배판형 | 컬러250쪽 | 흑백 250쪽 | 정가 30,000원. 사찰 및 유관·신행단체 배포용.